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기업 경영의 원동력

(주)경동나비엔은 1978년 3월에 설립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일러 생산 업체로 1979년 송탄공장에서 국내 최초 콤팩트형 사각 기름보일러 ‘코로나 KDB-202’를 출시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또한 최근에는 북경, 상해, 미국 등으로 진출하며 명실 공히 글로벌 기업으로 비상하고 있다.

이 같은 화려한 회사소개를 차치하고서라도 (주)경동나비엔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주)경동나비엔은 옛 사명인 ‘경동보일러’로 1990년대 초·중반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라는 광고를 통해 대대적으로 브랜드를 알렸기 때문이다. 이후 2006년에는 경동나비엔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온수기·난방, 냉방·공조, 홈네트워크·각방제어시스템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콘덴싱 기술력으로 해외 1억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하는 등 국내 보일러 업계의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주)경동나비엔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남다른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대규모 기계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관리 기술과 노하우도 남다른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주)경동나비엔의 안전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최종숙 주임을 만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안전에 대한 소견을 들어본다.

취재 김성대 기자 glshu002@safety.or.kr



(주)경동나비엔 송탄공장 최종숙 주임

안전보건업무는 사후처리보다 예방이 중요

최종숙 주임이 안전보건업무를 접하게 된 것은 간호장교를 하시는 선생님의 권유로 산업간호업무를 시작하면서였다. 그는 일반 병원에서 모 음료업체로 자리를 옮겨 사업장의 보건업무를 맡게 됐고, 그때 보건업무에 종사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치료 이전에 다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었다. 즉, 사후처리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 이 말은 보건 관리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 사후처리에 급급한 것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마음으로 그는 2004년 (주)경동나비엔에 등지를 틀고, 본격적으로 기존 보건업무에 더해 안전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최 주임에게는 업무에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강조하는 지론이 있다. 안전보건관리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하는 것을 넘어 회사의 이익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품질관리의 기초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고, 이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재해예방의 지름길

(주)경동나비엔은 공정별로 여러 곳에 공장이 산재해 있다. 또 이들 공장은 공정별로 위험요소가 각기 다르다. 조립 공정에서는 반복 작업과 중량물 취급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이 많고, 가공 공정에서는 찰과상 및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주)경동나비엔 송탄공장은 유해요인 조사를 철저히 하여 각 공장의 유해위험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사고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소한 아차사고라도 발생했었다면 최 주임은 사고 당사자들 위주로 소그룹 집합교육을 실시해 토론하게 하고 대책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아울러 (주)경동나비엔은 ‘보건관리 프로그램(2010년 개발완료)’과 ‘유해화학물질관리 프로그램(2012년 개발완료)’을 통해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구축, 재해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먼저 보건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검진 사항뿐만 아니라 사소한 건강 상담까지 꼼꼼하게 입력해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 주임은 공정별로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해졌다고 한다. 예를 들어 조립 라인의 근로자들에게는 근골격계 예방관리를, 가공 라인의 근로자들에게는 외상위주의 관리를 집중·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최 주임은 유해화학물질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현장의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안전한 사용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보건관리

최종숙 주임이 (주)경동나비엔 송탄공장에서 안전보건업무에 종사한지도 어느덧 10년이 가까워 온다. 이제는 현장의 노하우도 많이 축적했고, 나름대로 작업환경에 따른 안전관리 방법도 개발했다. 이것이 자부심이라면 자부심이고 또 재해예방을 위한 이바지였다고 생각한다는 최종숙 주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더 깊은 책임감도 느낀다고 한다.

“안전보건업무는 안전보건관리자가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업장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근로자와 위험요소를 함께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근로자들은 안전보건관리를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안전보건업무는 귀찮고 혹여 불편하다 해도 자신과 가족을 위한 것임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확고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최종숙 주임. 그의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을 밑바탕으로 안전한 회사, 편안한 현장, 행복한 가정이 지속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

